

1.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은 어떻게 되는지?

-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,000억원 규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.
- 5.22일(금)~6.11일(목) 3주간 판매되며, 선착순 판매방식이므로 6,0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
* 판매 첫 주(5.22일(금)~5.28(목))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물량(6,000억원)의 50% 수준으로 관리

2. 서민전용 배정물량은 어떻게 판매되는지?

- 판매기간 3주 중 첫 2주(5.22일(금)~6.4일(목))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%인 1,200억원을 서민* 전용으로 배정합니다.

* 서민 기준 : 근로소득 5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) →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

-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.

3. 판매기간 3주 중 2주 동안에는 '서민전용'만 판매하는지?

- 판매 시작일(5.22일)부터 서민배정분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동시에 판매합니다.

4.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?

-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* 영업점·온라인 판매시간은 개별 판매사별 확인 필요

- **은 행(10)**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
- **증권사(15)** : KB증권, NH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증권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키움증권(온라인전용)

5. 가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?

-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입니다. 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)
 - ※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천만원
-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6.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?

-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(ISA)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 - 이 서류는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.
 - 국세청 홈택스, 정부 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상품 출시 전 미리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상품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* 온라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, 소득확인증명서 실물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판매사에 확인 필요
- ※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불필요
- 또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. (직전년도 기준 서류에 한함)

7.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?

-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.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

8.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의 위험 등급은?

- '국민참여성장펀드'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(1등급)으로서,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 가입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9. 재정이 개인 투자금액의 20%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지?

- 개인별 투자금액의 20%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- 국민참여성장펀드 총결성액은 ①국민투자금 6,000억원(선순위), ②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,200억원(국민투자금의 20%)과 ③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(후순위)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.
 - 합산된 총금액이 10개 자펀드별로 나누어서 운용되고, 각 자펀드별로 배분된 후순위 출자분(재정+운용사 시딩투자금)은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합니다.
-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%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,
 -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20%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.

※ 예) 개별 자펀드 규모가 1,212억원인 경우(국민투자금 1,000억원 + 재정 200억원 +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 12억(1%))를 가정 시, 해당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은 국민투자금 1,000억원의 20%인 200억원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(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한 구조로 손실 우선 부담) → 개별 펀드 전체 결성액인 1,212억원의 20%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아님